

생활물가 오름세... 서민가계 부담 ↑

휘발유탄 이어 소주·맥주 인상 대기... 외식비 오르고 가공식품 곱들

최근 생활 물가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제주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0.94당 1577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들어 1393원으로 출발한 휘발유 가격은 0.94당 200원 가까이 인상됐다.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율 인하가 지난 7일부터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국평균(1530원)보다 47원 가량 비싸고,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1618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기름값을 걱정하는 사이 자동차보

험료도 6월부터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이미 한 차례 보험료를 올린 손보사들이 5개월여 만에 다시 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자동차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1.5% 안팎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쯤 공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소주와 맥주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소주제품 출고가격을 지난 1일부터 평균 6.45% 인상했다. 뒤이어 제주지역 대표 소주업체인 한라산소주도 지난 14일부터 6.4% 가량씩 올랐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초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비록 식당등에선 출고가격에 맞춰 주류가격을 인상하진 않았지만 머지않아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 가운데 맛살(3.9%)과 된장(3.9%), 참치캔(3.0%) 등 16개 품목이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다.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품목의 평균 구매비용은 12만 4229원으로, 전월(3월) 대비 0.6% 상승,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 올랐다.

주요 외식 메뉴 가격도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다. 경기 침체로 임대료·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올들어

서면서 대부분 가격이 인상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의하면 제주지역 비빔밥 가격은 올 1월만 하더라도 7750원하던 것이 2월부터 8250원으로 500원 올랐다. 칼국수 가격도 1월 7250원에서 2월 7500원으로 인상됐다. 또 짜장면과 삼겹살, 김밥 등도 올들어 일제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찌개를 비롯해 삼겹살과 짜장면, 칼국수 등은 전국 최고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점심값도 1인당 1만원을 웃돌거나 육박하는 음식이 즐비한 실정이라서 서민들은 이래저래 힘든 시절의 연속이다.

조선용기자 sycho@ihalla.com

사이버 도박사범 무더기 검거

경찰, 1월부터 특별단속... 4개월새 21명 검거 수백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조직원도 포함

경찰이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4개월 동안 무려 21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4월말 기준 21명이 검거돼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스포츠도박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 도박이 4명이었다. 배팅행위자는 13명이었는데, 이중 1명이 구속됐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필리핀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이 제주경찰청에 의해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도박 사이트 총책 및 관리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2개월 동안 1000여만원을 편취한 뒤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배팅한 A(29)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도

박 행위자까지 검거하는 등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하고, 국제청에 통보해 계좌 출금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찰이 직접 출장을 나가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 교통 과태료 체납 75억원

경찰, 대·소형마트 위주 번호판 영치활동

제주 교통 과태료 체납건수가 11만 건을 넘고, 액수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

주지역 교통 과태료 체납건수는 11만 2439건으로 체납액은 75억원에 달하고 있다. 체납 대상은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과

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지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대·소형마트를 위주로 이뤄지며, 체납 차량번호판자동인식(AVNI) 장비가

탑재된 차량과 조화용 단말기가 투입된다.

한편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송은범기자

독자제보 750-2225



노루 먹이주는 아이들 17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제주자연생태공원을 찾은 한 어린이집 원아들이 노루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비상'

제주공항 입국 中관광객 갖고 온 소시지에서 바이러스 검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중국 산둥성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돈육 가공품인 소시지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형(genotype)과 같은 'II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7일에도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휴대품 '소시지'에서 ASF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이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식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된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ASF 발생국은 지난 17일 기준 아프리카 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5

개국에 이른다.

아시아의 경우 지난해부터 중국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332건, 캄보디아 7건, 홍콩 1건이 발생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211건에서 열흘만에 발생건수가 100배가 넘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위험경로를 분석해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집중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ASF 발생 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포함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공항사무소도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검역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ASF 바이러스는 사멸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방역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제주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 2013~2017년 연평균 15% 늘어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에너지공단 '2018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주지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만8000t 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으로 전년에 비해

10.3% 늘었다.

제주지역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 11만8000t CO2eq에서 2014년 9만9000t CO2eq로 한 차례 감소한 것으로 제외하면 2015년 16만2000t CO2eq, 2016년 19만7000t CO2eq 등 해마다 증가해 지난 4년(2013~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5.2%에 달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제주 다음으로 증가율이 큰 서울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높았다.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0.1%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이성민기자

“온디모영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대정농협”

대정농협은 지역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대정농협이 함께 꾸는 꿈.
대정농협은 언제나 농업인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정농협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조감도



조합장 이창철

- 상임이사 황용훈
- 사외이사 강병수
- 이 사 임영철 문홍수 강수현 문성두 이창훈 이정헌
- 진성철 문창오 좌영순 신금복 김창혁 고영필
- 감 사 이경진 강동건



- [본점]** 사 무 실 794-8501~5 / 조합장실 794-0851 / 상임이사실 794-0660
하나로마트 794-8507 / 농협주유소 792-8249, 792-8250 / 농기계센터 794-8508,
농약판매장 794-1687, 794-9719 / FAX 794-8552, 792-0947, 794-8991
- [무릉지점]** 사 무 실 792-2007, 792-2305, 792-2809 / 농기계센터 792-2117 FAX 792-0830
주 유 소 792-8201
- [중앙지점]** 사 무 실 794-8509~10 FAX 794-3265
- [보성지점]** 사 무 실 794-8511 / 농기계센터 794-5004 / 감귤선과장 794-8980 FAX 794-8553
- [유통센터]** 사 무 실 794-8506 / 자재판매장 794-6345 FAX 794-8551
- [전분공장]** 사 무 실 794-8540 FAX 794-8541 **[마늘공장]** 사 무 실 794-8587 FAX 794-8588

농업인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대정농업협동조합

www.djnonghyup.com / 064)794-8501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